

# 검은 욕망으로 피어난 상사화의 절규

## 임남진의 '여여如如, 무위撫慰...'

꽃은 잎을 만날 수 없고 잎은 꽃을 만날 수 없어 서로 그리워만 하다가 지고마는 꽃 상사화. 그래서 상사화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의 표상이기도 하다. 임남진 작가가 역시 이런 상사화를 만나고 난 뒤 그 뜻이 너무나 서글퍼 마음이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상사화를 보고 또 보며 이내 그녀는 인간의 욕망을 읽어냈다고 한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상사화의 이면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꽃은 잎을 갖고 싶고 잎은 꽃을 갖고 싶어하며 사랑의 결실을 갈망하는 그것은 욕망이었다. 이제 그 욕망의 덩어리를 알아채는 순간 붉은 상사화는 검정색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위 파랗게 한 마리가 내려 앉아 욕망과 집착에 묶여 윤희를 거듭하는 처연한 인간의 모습에 절규를 하고야 만다.



임남진의 '여여, 무위로서 피는 꽃, 지는 꽃' 이 12월 2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상사화 등 꽃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 왼쪽은 '할미', 오른쪽은 '상사화'.

### 인간의 희노애락 꽃에서 찾아

### 상사화 할미꽃 찰레꽃 등 작업

### 12월 2일까지 광주 신세계서

영되어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행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그녀가 가장 공을 들인 작품은 역시나 상사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고산 윤선도의 녹우당에 갔다가 마당에 심어진 상사화를 처음 보았죠. 그의 미가 너무 슬퍼 이를 작품으로 옮기기 위해 무더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기에서 사랑의 결실을 욕망하는 인간의 내면을 읽어냈죠. 불교적으로 보면 남녀간의 사랑도 애욕에 불과한 거죠. 절 집안에서도 스님들이 상좌가 심란해 할 때 상사화를 심게 한다고 들었어요. 불가에서는 상사화가 피안의 세계를 뜻한다고 해요. 제

가 느꼈던 그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면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서양화를 전공한 그녀가 한국화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94년 고려불화전에서 받은 감동 때문이다. 이후 우연히 후불탱화 모사 작업을 하는 선배의 일을 돕게 되면서 불화 작업에 흥미를 갖게 된다. 작업이 끝나자 선배는 더 연습을 해보라며 비단과 물감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때부터 임 씨는 지장보살도를 모사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서양화에서 한국화로 작업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98년도 불교미술대전에서 감로탱화로 특선을 받으면서 그녀의 작품세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후 그녀는 감로탱화를 모티브로 한 고려 불화 기법으로 신종속화를 그려냈다. 그것이 바로 5.18을 주제로 한 '오월감로탱화'다. 이렇게 감로탱화 형식의 신종속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숨은그림찾기처럼 보여

주며 그녀의 작품들은 호평을 받았다.

작가는 앞으로 오백나한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한다. 임 씨는 "항상 오백나한도를 어떻게 우리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품으로 옮기는데에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지만 더 많이 생각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종교적 접근보다는 회화적 접근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만큼 오백나한도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니까요"

임남진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대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98년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 2001년 신세계미술제장작지원공모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0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으며, 개인전으로는 심심(深心)한날,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초대전-만화경, 영혼의 여정 등을 펼쳤다. (062)360-127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선법가로 자비의 마음 전해

## 한마음합창단 송년후원의 밤

한마음선법합창단 송년후원의밤이 12월 8일 토요일 오후 8시·7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열린다. 주부 직장인 등 1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한마음선법합창단은 선법가 태평무 탭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합창단은 '해수 관음의 빛'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영상물 상영, 보살중 참담의 가요메들리, 성악가 염경목의 가곡 무대, 혼성복합 및 탭댄스팀, 중창팀 공

### 선법가 탭댄스 등 다양한 무대 마련

### 12월 8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서

연 휘날려 순으로 공연한다. 특히, 오프닝 무대와 휘날레곡은 대행 스님 범문에 곡을 붙인 신형 선법가로 구성됐다.

이행택 단장은 "지난 8월부터 매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지금까지 한마음 선법합창단은 활동적이며 창의적 공연 문화 발전 추구, 합창단 자체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기 공연의 틀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다양한 공연과 불거리로 합창단 본연의 합창과 더불어 소박하고



한마음 선원은 12월 8일 송년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감성적인 무대를 꾸밀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 활동 사항을 담은 합창단의 운력, 연동축제, 각종 음성공양 등의 활동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한마음선원선법합창단은 1984년 창단 이래 소년소녀 가정돕기, 군병당 음성공양, 대장경연구소 발전기금 모금 공연, 안양교도소 공연 등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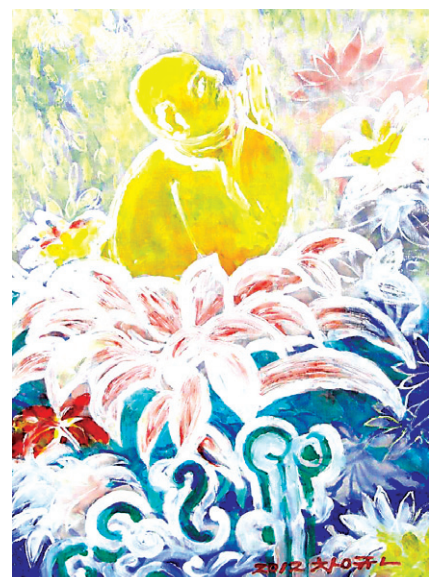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 붓 끝에 나투신 부처님을 만나다

## 제22회 불미협 기획전

제 22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붓 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11월 28일~12월 4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 3전시실에서 열린다.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불교미술협회는 불교회화, 불교 조각, 불교공예 등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문명대(동국대 명예교수), 김창균(동국대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교수), 이상배(불교조각가), 박



김창균 교수의 '바라온건대'

### 불교미술의 현대화 추구

### 11월 28일부터... 경인미술관서

경규(불화작가, 선아트스페이스 대표), 신주호(단국대 예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김석근(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조형연구소 연구원), 고승희(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조형연구소 연구원), 이수예(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소장) 등 40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라온건대' '처염상정' '관음보살도' '심유나한도' 등이 선보인다.

불미협 김창균 회장은 "불미협은 오롯이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불교미술의 방향을 연구해오고 있

며 그 노력을 기획전으로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우리들 마음 속 부처님을 주제로 기획돼 전통성과 현대성, 대중성을 두루 갖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한국불교미술협회는 불교미술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현재 불교미술 작가와 불교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02)2260-8924

정혜숙 기자

# 불교계 독립운동 다큐로 집중 조명



## BTN '암흑속에 핀...' 28일 방영 백초월 스님 일심교 활동 영상으로

불교역사추적다큐멘터리 BTN의 '암흑속에 핀 화엄불국토, 초월의 일심교'가 11월 28일·11월 30일·12월 2일에 걸쳐 방송된다. '암흑속에 핀...'은 2009년 5월 서울 진관사 칠성각 해체보수 과정에서 나온 독립운동 관련 유물을 통해 불교계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BTN은 1910년부터 1945년 광복 직후까지, 일제강점기 시절 불교의 선지식이었던 백초월(白初月)스님이 화엄사상에서 독립운동의 명분을 찾아 만든 일심교(一心敎)를 중심으로 불교계 독립운동을 조명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3.1운동 당시 '한국민단본부' 설치 비밀결사 활동 △의용승군 활동 △비밀연락망이었던 연동제 조직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혁신공보 발간 △제2차 독립만세운동 추진 △만주행 군용열차에 '대한독립만세'를 쓴 대서

(大書)사건 등 초월스님의 독립운동을 보여준다. BTN은 "초월스님의 일심교를 중심으로 펼친 불교계 독립운동의 조명은 잠들었던 근·현대사를 일깨워 한국사와 불교사를 바로 보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에 불교계의 독립활동을 추적 고찰,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스님들과 민중들의 항일독립운동으로 호국불교를 실현한 행적을 영상화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BTN은 "본 프로그램은 구성에 있어 일 반적인 사건의 추적과 상황 재연 그리고 샌드아트 영상 표현 기법을 통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 자연을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밑납초**

一人一燭 연꽃밑납양초

삼산화제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밑납양초 교체형

아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등 7.0f x 34cm

아광 용 양초 연봉 원기등 7.0f x 34cm

육각초 7.0f x 34

밑납연화 소 7f x 6.5cm

연화 대 9.5f x 11cm, 연화 중 9f x 10cm, 연화 소 7f x 6.5cm

외계바

후라자마

영원형 정.단(소바라)

항수림

백옥함, 목함

우리향 백단향, 설종매, 인상향, 대법향, 속향

도자기 인등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원기등나비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